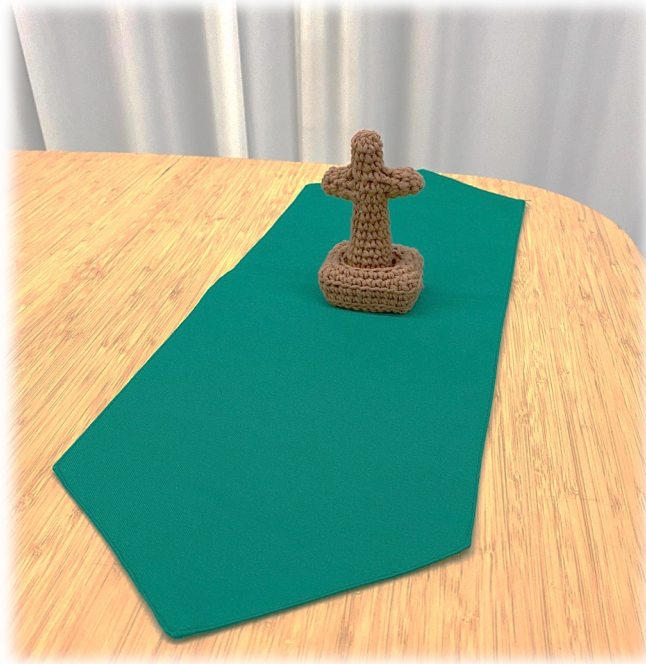


7월 성서정과



시 66:1-9	렘 51:47-58	고후 8:1-7	본문종합
<p>1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여,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십시오.</p> <p>2 하나님의 찬란한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그분에게 영광스런 찬송을 드리십시오.</p> <p>3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주께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은 대단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 앞에 고꾸라집니다.</p> <p>4 온 땅이 주께 머리를 숙입니다. 그들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셀라)</p> <p>5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p> <p>6 주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 다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p> <p>7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나라들을 지켜 보십니다. 그러므로 배반하는 자들이여, 그분께 대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셀라)</p> <p>8 모든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p> <p>9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 두시고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p>	<p>47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우상들을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날에 바빌론의 온 땅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온 땅에 수많은 사람의 시체들이 널리게 될 것이다.</p> <p>48 그 때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을 보고 기뻐하며 외칠 것이다. 군대가 북쪽에서 와서 바빌론을 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p> <p>49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고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을 죽였다. 그러므로 바빌로니아는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p> <p>50 칼에 맞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서둘러 바빌로니아를 떠나라. 머뭇거리지 마라. 먼 곳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네 마음에 기억하여라.</p> <p>51 우리 유다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 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p> <p>52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우상들을 심판할 날이 온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온 땅에서 다친 사람들이 신음할 것이다.</p> <p>53 바빌론이 하늘까지 닿는다 하더라도, 요새 성을 드높게 든든히 쌓는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p> <p>54 "바빌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멸망의 소리가 들린다.</p> <p>55 여호와께서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바빌론의 요란한 소리를 잠잠하게 하신다. 원수들이 큰 파도가 되어 밀려 온다. 그 소리가 온 땅에 들린다.</p> <p>56 멸망시킬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군인들은 포로로 잡히고 그들의 활은 꺾인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의 악한 짓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p> <p>57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통치자들과 이름 있는 자들을 취하게 하겠다. 총독들과 관리들과 군인들도 취하게 하겠다. 그들을 영영 깨어나지 못할 잠에 빠지게 하겠다.</p> <p>58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바빌론의 두꺼운 성벽이 허물어지고 높이 솟은 성문은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백성이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겠고 온 나라가 불 때문에 지칠 것이다."</p>	<p>1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p> <p>2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p> <p>3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말입니다.</p> <p>4 그 교회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p> <p>5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p> <p>6 그래서 우리는 디도가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완수하라고 그를 권했습니다.</p> <p>7 여러분은 믿음이나 말에 있어서만 아니라, 지식이나 간절한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도 뛰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본 문 종합</p>
<p>요 약</p>	<p>요 약</p>	<p>오늘의 기도</p>	

시 66:1-9	속 14:10-21	눅 9:1-6	본문종합
<p>1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여,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십시오.</p> <p>2 하나님의 찬란한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그분에게 영광스런 찬송을 드리십시오.</p> <p>3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주께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은 대단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 앞에 고꾸라집니다.</p> <p>4 온 땅이 주께 머리를 숙입니다. 그들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셀라)</p> <p>5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p> <p>6 주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 다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p> <p>7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나라들을 지켜 보십니다. 그러므로 배반하는 자들이여, 그분께 대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셀라)</p> <p>8 모든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p> <p>9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 두시고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p>	<p>10 계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평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베냐민 문에서 첫 문을 지나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주틀까지 제자리에 높이 솟아 있을 것이다.</p> <p>11 백성이 거기에 살 것이며 다시는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p> <p>12 그러나 예루살렘을 친 나라들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도 그들의 살이 썩고,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p> <p>13 그 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공포를 퍼뜨리실 것이다. 사람마다 이웃을 붙잡고 서로 칠 것이다.</p> <p>14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다. 이웃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옷가지가 예루살렘에 쌓일 것이다.</p> <p>15 이와 똑같은 재앙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p> <p>16 예루살렘을 치러 온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 영원한 왕께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p> <p>17 세계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 영원한 왕께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있으면 그 백성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p> <p>18 이집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다른 나라들에 내린 것과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p> <p>19 이집트를 비롯해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나라마다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p> <p>20 그 날이 오면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의 술들도 거룩한 제단 그릇들처럼 될 것이다.</p> <p>21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술도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친 성물이 될 것이며, 제물을 바치는 사람마다 그 술들로 고기를 삶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와 성전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p>	<p>1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p> <p>2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p> <p>3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또는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두 벌을 준비하지 마라.</p> <p>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p> <p>5 만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나올 때에 네 발에서 먼지를 털어 버려라.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p> <p>6 제자들이 떠나,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본문종합</p>
<p style="text-align: center;">요약</p>	<p style="text-align: center;">요약</p>	<p style="text-align: center;">오늘의 기도</p>	

사 66:10-14, 시66:1-9	갈 6:(1-6),7-16	눅 10:1-11,16-20	본문종합
<p>10"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은 예루살렘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p> <p>11 아기가 어머니 젖을 빨며 만족해하듯, 너희가 예루살렘의 좋은 것을 배불리 먹으며, 예루살렘의 귀한 것을 차지하고 기쁨을 누릴 것이다."</p> <p>12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민족들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겠다. 너희는 아기처럼 젖을 빨며 내 품에 안길 것이고, 내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p> <p>13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p> <p>14 너희가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너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것이다. 여호와의 종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보겠으나, 여호와의 원수는 여호와의 진노를 볼 것이다.</p> <p>시 66:1-9</p> <p>1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여,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십시오</p> <p>2 하나님의 찬란한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그분에게 영광스런 찬송을 드리십시오</p> <p>3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주께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은 대단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 앞에 고꾸라졌습니다.</p> <p>4 온 땅이 주께 머리를 숙입니다. 그들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셀라)</p> <p>5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p> <p>6 주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 다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p> <p>7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나라들을 지켜 보십니다. 그러므로 배반하는 자들이여, 그분께 대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셀라)</p> <p>8 모든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p> <p>9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 두시고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p>	<p>1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죄지은 사람이 있거든, 신령함을 지닌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p> <p>2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p> <p>3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p> <p>4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피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p> <p>5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p> <p>6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p> <p>7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p> <p>8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p> <p>9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p> <p>10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p> <p>11 내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글자로 씁니다.</p> <p>12 여러분에게 역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p> <p>13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p> <p>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p> <p>15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p> <p>16 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p>	<p>1 이후에 주께서 칠십 명을 임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모든 마을과 고장으로 미리 둘씩 보내셨습니다.</p> <p>2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밭으로 일꾼을 보내 달라고 간청하여라.</p> <p>3 가거라. 내가 어린 양을 늑대들 사이로 보내는 것같이 너희를 보낸다.</p> <p>4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챙기지 마라.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p> <p>5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말하여라.</p> <p>6 만일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네 평화가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p> <p>7 그 집에 머물러라. 거기서 네게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은 자기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p> <p>8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환영하면, 네 앞에 차려진 것을 먹어라.</p> <p>9 그 곳의 환자들을 고쳐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하여라.</p> <p>10 그러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맞이하지 않으면, 그 마을의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여라.</p> <p>11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를 털고 간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명심하여라.'</p> <p>12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한 나를 배척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p> <p>13 칠십 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님, 심지어 마귀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p> <p>1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p> <p>19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막을 권세를 주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p> <p>20 그러나 마귀들이 너희에게 굴복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p>	
	<p>요 약</p>	<p>요 약</p>	<p>오늘의 기도</p>

시 119:73-80	렘 6:10-19	행 19:21-27	본문종합
<p>73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해 주소서.</p> <p>74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에 기뻐하게 해 주소서. 이는 내가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p> <p>75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도가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심을 따라 내게 어려움 주신 것을 압니다.</p> <p>76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해 주소서.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위로하여 주소서.</p> <p>77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p> <p>78 교만한 자들이 까닭 없이 나를 못살게 겁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해 주소서. 나는 주의 교훈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p> <p>79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법규들을 이해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 주소서.</p> <p>80 나의 마음이 주의 법령들을 향해 순결하게 하시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p>	<p>10 내가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누구를 향해 경고하겠습니까? 누가 내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막고 있어서 내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말씀을 비웃으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싫어합니다.</p> <p>11 내게 여호와와 분노가 가득하니 더 이상 품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에서 놓고 있는 아이들과 모여 있는 젊은이들에게 쏟아라. 남편과 그 아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 사로잡힐 것이며 장로들과 늙은이들도 사로잡힐 것이다.</p> <p>12 그들의 집은 남들에게 넘어갈 것이며, 그들의 밭과 아내도 함께 넘어갈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여호와와 말이다."</p> <p>13 작은 사람에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돈에 욕심내고 있다. 예언자와 제사장들까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p> <p>14 내 백성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 평화' 하고 말한다.</p> <p>15 그들은 역겨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수치를 알지도 못하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은 쓰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와 말이다</p> <p>16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갈림길에 서서 살펴보아라. 너희 조상들이 걷던 선한 옛길이 어디인지 물어 보고 그 길로 가거라. 너희가 실 곳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고 말했다.</p> <p>17 내가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우고 전쟁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귀 기울여 듣지 않겠다'고 말했다.</p> <p>18 너희 모든 나라들이, 들어라. 무리들이, 내가 유다 백성에게 할 일을 눈여겨 보아라.</p> <p>19 땅이여, 들어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보내겠다. 그들이 악한 일을 꾸몄으므로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내 가르침을 저버렸다.</p>	<p>21 그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 봐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p> <p>22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렀습니다.</p> <p>23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p> <p>24 데메드리오라는 은 세공인이 있었는데,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직공들에게도 많은 돈을 벌게 했습니다.</p> <p>25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 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p> <p>26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 놓았습니다.</p> <p>27 이리다가는 우리 사업이 명성을 잃게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우습게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p>	
요약	요약	요약	오늘의 기도

시 119:73-80	렘 8:4-13	행 19:28-41	본문종합
<p>73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해 주소서.</p> <p>74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에 기뻐하게 해 주소서. 이는 내가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p> <p>75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도가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심을 따라 내게 어려움 주신 것을 압니다.</p> <p>76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해 주소서.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위로하여 주소서.</p> <p>77 주께서 나를 붙잡혀 여겨 주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p> <p>78 교만한 자들이 까닭 없이 나를 못살게 굶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해 주소서. 나는 주의 교훈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p> <p>79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법규들을 이해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 주소서.</p> <p>80 나의 마음이 주의 법령들을 향해 순결하게 하시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p>	<p>4 너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듯 길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p> <p>5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은 그릇된 길로 가며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그들이 거짓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부한다.</p> <p>6 내가 귀를 기울여 들어 보았지만, 그들은 정직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악한 짓을 하고도 뉘우칠 줄 몰랐다. 도리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라고 한다.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처럼 그들은 모두 각기 제 갈 길로 갔다.</p> <p>7 하늘의 황새도 제 때를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가 바라는 공평을 알지도 못한다.</p> <p>8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지혜롭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느냐? 실은 서기관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짓말로 기록하였다.</p> <p>9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것이다. 보아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p> <p>10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새 주인에게 주겠다. 작은 사람에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돈을 욕심내고 있다. 예언자와 제사장들까지 모두 거짓을 행하고 있다.</p> <p>11 내 백성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 평화' 하고 말한다.</p> <p>12 그들은 역겨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수치를 알지도 못하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모른다. 그들은 쓰러질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p> <p>13 내가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나 여호와와 말이다. 포도밭에는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잎사귀도 말라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p>	<p>28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격분하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소리지르기 시작했습니다.</p> <p>29 도시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군중들은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p> <p>30 그 때, 바울도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p> <p>31 또 바울과 친하게 지내던 아시아의 관리 몇 사람들도 사람을 보내어 바울더러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p> <p>32 극장 안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외쳐대는 바람에 극장 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그 곳에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p> <p>33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앞으로 밀어 내자, 군중들 중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습니다. 알렉산더가 손짓으로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후, 군중들에게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p> <p>34 그러자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한 목소리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두 시간이나 외쳐댔습니다.</p> <p>35 마침내 에베소 시의 서기관이 나와 군중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는 곳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p> <p>36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시민 여러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솔한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p> <p>37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이리로 끌고 왔으나, 이 사람들은 우리 여신을 모욕한 적도 없고 그 신전에서 무엇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p> <p>38 우리에게는 재판정이 있고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만약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이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당사자들이 재판정으로 가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p> <p>39 그 밖에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공식적인 모임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p> <p>40 이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동을 일으킨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고, 또 이 소동에 대해 변명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p> <p>41 그는 이렇게 말하고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p>	
요약	요약	오늘의 기도	

시 119:73-80	수 23:1-16	눅 10:13-16	본문종합
<p>73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해 주소서.</p> <p>74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에 기뻐하게 해 주소서. 이는 내가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p> <p>75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도가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심을 따라 내게 어려움 주신 것을 압니다.</p> <p>76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해 주소서.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위로하여 주소서.</p> <p>77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p> <p>78 교만한 자들이 까닭 없이 나를 못살게 굶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해 주소서. 나는 주의 교훈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p> <p>79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법규들을 이해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 주소서.</p> <p>80 나의 마음이 주의 법령들을 향해 순결하게 하시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p>	<p>1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지자</p> <p>2 여호수아는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매우 늙었소.</p> <p>3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적을 향해 하신 일을 보았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우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소.</p> <p>4 보시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파들에게 요단 강에서부터 해지는 곳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 있는 나라와 이미 정복한 나라를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소.</p> <p>5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쫓아 내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약속하셨소.</p> <p>6 힘을 내시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써 있는 모든 것에 복종하도록 주의하시오.</p> <p>7 우리 가운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소.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소.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마시오.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시오.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예배드리지 마시오.</p> <p>8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따라야 하오.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래야 하오.</p> <p>9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크고 강한 여러 나라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 주셨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 내셨소. 어떤 나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었소.</p> <p>10 여호와와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적군 천 명을 이길 수 있었소.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셨기 때문이오.</p> <p>11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p> <p>12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와 길에서 떠나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결혼하면</p> <p>13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는 여러분 앞에서 적을 쫓아 주시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하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덮이 될 것이요. 그들은 등을 내려치는 채찍이나 눈을 찌르는 가시와 같이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안겨 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오.</p> <p>14 보시오, 이제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을 때가 되었소.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소. 여호와께서는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소.</p> <p>15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졌소.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해로운 일들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준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수도 있소.</p> <p>16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오. 또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화를 내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오."</p>	<p>13 "그라신야 네게 화가 미칠 것이다. 벳새다야 네게 화가 미칠 것이다. 만일 너희에게서 행했던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라면 그들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오래 전에 회개하였을 것이다.</p> <p>14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p> <p>15 너 가버나움야!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오히려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p> <p>16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한 나를 배척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p>	
요 약			오늘의 기도
요 약			

시 25:1-10	창 41:14-36	약 2:14-26	본문종합
<p>1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p> <p>2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스하지 못하게 해 주소서.</p> <p>3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닭없이 함부로 배신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p> <p>4 여호와여, 주의 길을 보여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p> <p>5 주의 진리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p> <p>6 여호와여, 예로부터 한결같은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잊지 마소서.</p> <p>7 내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과 주님께 반항했던 잘못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좋은 분이십니다.</p> <p>8 여호와와 좋은 교제와 올바른 분이시기에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 주십니다.</p> <p>9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p> <p>10 여호와와의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신실함과 자비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p>	<p>14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서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은 뒤에 파라오 앞에 나아갔습니다.</p> <p>15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p> <p>16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p> <p>17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꿈에서 나는 나일 강가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18살지고 아름다운 소 일곱 마리를 보았다. 그 소들은 강에서 나와 풀을 뜯어먹었다. 19그런데 또 강에서 다른 소 일곱 마리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소들은 아귀고 마르고 못생겼다. 이제껏 내가 이집트의 온 땅에서 보아 온 소 중에서 가장 못생긴 소였다. 20이 아귀고 못생긴 소들이 먼저 나온 살진 일곱 마리 소를 잡아먹었다. 21그런데 이 아귀고 소 일곱 마리는 살진 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었으면서도 처음과 똑같이 마르고 못생겨 보였다. 그 때에 나는 잠이 깨다. 22나는 또 다른 꿈도 꾸었다. 어떤 한 가지에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 일곱 개가 나 있는 것을 보았다. 23그런 다음에 다른 일곱 이삭이 또 솟아 나왔는데, 그 이삭들은 아귀고 말랐다. 그 이삭들은 동쪽에서 불어 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바싹 말라 있었다. 24그런데 아귀고 이삭들이 살진 이삭들을 잡아먹었다. 나는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아무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설명해 주지 못했다."</p> <p>25그 때에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꿈의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께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26좋은 소 일곱 마리는 칠 년을 뜻합니다. 또 좋은 이삭 일곱 개도 칠 년을 뜻합니다. 두 꿈은 똑같은 것을 뜻합니다. 27마르고 못생긴 일곱 소는 칠 년을 뜻합니다. 또 동쪽에서 불어 오는 뜨거운 바람에 바싹 마른 일곱 이삭도 칠 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뜻합니다. 28이 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께 미리 보여 주셨습니다. 29이집트의 온 땅에는 칠 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30그러나 그 칠 년이 지나면 칠 년 동안 가뭄이 들 것입니다. 모든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든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큰 가뭄이 들 것입니다. 가뭄이 온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31심지어 백성들이 풍년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가뭄이 심해질 것입니다. 32파라오께서는 뜻이 똑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로 굳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곧 이루실 것입니다. 33그러나 파라오께서는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으셔서 그 사람에게 이집트 땅을 맡기십시오. 34그리고 모든 이집트 땅에 관리들을 세우셔서, 풍년이 드는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는 식물의 오분의 일을 거두어들이십시오. 35그 관리들은 앞으로 있을 풍년 기간 동안 생산될 모든 식물을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에 힘입어 곡물을 성마다 쌓아 두고 지켜야 합니다. 36나중을 위해 그 식물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 식물은 이집트 땅에 타격을 칠 년 동안의 가뭄 때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칠 년 동안 가뭄이 들어도 이집트 백성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p>	<p>14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p> <p>15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16"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p> <p>17믿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18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도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 주겠습니다.</p> <p>19여러분은 하나님이나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으며 두려워서 맵니다. 20여러분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걸 모르시겠습니까?</p> <p>21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p> <p>22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p> <p>23"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p> <p>24그러므로 사람이 행동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만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p> <p>25또 리합의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그녀의 집에 들여,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게 도와 주었습니다.</p> <p>26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p>	
			<p>오늘의 기도</p>
	<p>요약</p>	<p>요약</p>	

시 25:1-10	창 41:37-49	행 7:9-16	본문종합
<p>1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2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스대지 못하게 해 주소서. 3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닭없이 함부로 배신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4 여호와여, 주의 길을 보여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5 주의 진리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6 여호와여, 예로부터 한결같은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잊지 마소서. 7 내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과 주님께 반항했던 잘못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주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8 여호와여는 좋으시고 올바른 분이시기에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 주십니다. 9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10 여호와와의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신실함과 자비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p>	<p>37 요셉의 말은 파라오가 듣기에 매우 훌륭한 의견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8 그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요셉보다 이 일을 더 잘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39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보여 주셨다.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40 나는 내 왕궁을 그대에게 맡긴다. 모든 백성들이 그대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대보다 높은 사람은 나밖에 없도다." 41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그대에게 모든 이집트 땅을 맡긴다." 42 그리고 자기 손가락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고운 세마포 옷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43 파라오가 요셉을 자기 수레 다음으로 좋은 수레에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이 탄 수레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집트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44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파라오다. 이제는 모든 이집트 땅의 누구라도 그대의 허락 없이는 손과 발이라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한다." 4 5 그는 요셉에게 사브넛바네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또 요셉에게 아스낫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아스낫은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46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한 때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의 모든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47 풍년이 든 칠 년 동안에는 땅의 작물들이 잘 자라났습니다. 48 요셉은 풍년이 든 칠 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자라난 모든 식물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요셉은 그 식물을 각 성에 쌓아 두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성마다 그 성 근처의 밭에서 자라난 식물을 쌓아 두었습니다. 49 요셉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곡식을 쌓아 두었습니다. 쌓아 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p>	<p>9 열두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이집트에 종으로 팔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10 요셉은 그 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구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 이집트와 왕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11 그 때에 온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12 그러다가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우리의 족장들을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13 그들이 두 번째로 이집트에 갔을 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도 요셉의 가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14 이 일이 일어난 후, 요셉은 형들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식구 일흔다섯 명 전부 이집트로 모셔 오게 했습니다. 15 그리하여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야곱과 우리 족장들은 거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16 그 뒤에 그들의 시체는 세겜으로 옮겨져서 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세겜에 사는 하물의 자손에게서 산 무덤입니다.</p>	
	<p>요 약</p>	<p>요 약</p>	<p>오늘의 기도</p>

시 25:1-10	레 19:1-4,32-37	요 3:16-21	본문종합
<p>1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2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스대지 못하게 해 주소서. 3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닭없이 함부로 배신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4 여호와여, 주의 길을 보여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5 주의 진리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6 여호와여, 예로부터 한결같은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잊지 마소서. 7 내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과 주님께 반항했던 잘못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8 여호와와 좋은 교우가 되시기에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 주십시오. 9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10 여호와의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신실함과 자비로움으로 인도하십시오.</p>	<p>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므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3 너희는 모두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4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가 섬길 신상을 만들지도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32 노인을 존경하여라. 노인이 방에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33 너희 땅에 외국인인 너희와 함께 살 때,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34 그들을 너희 동포처럼 여기고, 너희 몸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살 때는 외국인이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35 사람들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달 때도 정확하게 하여라. 36 올바른 추와 저울과 에바와 힌을 사용하여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37 나의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p>	<p>1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17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18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20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21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p>	<p>오늘의 기도</p>
<p>요약</p>	<p>요약</p>		

신 30:9-14, 시25:1-10	골 1:1-14	눅 10:25-37	본문종합
<p>9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며 여러분의 짐승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고 여러분의 땅에서는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듯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요</p> <p>10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중하시오 이 율법의 책에 적혀 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시오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시오"</p> <p>11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p> <p>12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저 명령을 받아 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할 수 없소</p> <p>13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바다 저편으로 가서 저 명령을 받아 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할 수도 없소</p> <p>14 그렇소 그 말씀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소 그것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소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지키시오</p>	<p>1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p> <p>2 골로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p> <p>3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p> <p>4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p> <p>5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소망에 대해서는 처음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때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p> <p>6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p> <p>7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입니다.</p> <p>8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그를 통해 들었습니다.</p> <p>9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p> <p>10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 가길 기대합니다.</p> <p>11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p> <p>12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p> <p>13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p> <p>14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p>	<p>25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p> <p>26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p> <p>27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네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까?"</p> <p>28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p> <p>29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p> <p>30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 두고 갔다.</p> <p>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p> <p>32 어떤 레위인도 그 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p> <p>33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p> <p>34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봉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p> <p>35 다음 날 그는 은화 두 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p> <p>36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p> <p>37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p>	
<p>[시25:1-10]</p> <p>1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p> <p>2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스대지 못하게 해 주소서.</p> <p>3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닭없이 함부로 배신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p> <p>4 여호와여, 주의 길을 보여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p> <p>5 주의 진리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p> <p>6 여호와여, 예로부터 한결같은 신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잊지 마소서.</p> <p>7 내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과 주님께 반항했던 잘못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주님은 좋은 분이십니다.</p> <p>8 여호와는 좋으시고 올바른 분이시기에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 주십니다.</p> <p>9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p> <p>10 여호와와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신실함과 자비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p>			<p>오늘의 기도</p>
<p>요 약</p>		<p>요 약</p>	

시 25:11-20	욥 24:1-8	약 2:1-7	본문종합
<p>11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은 수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p> <p>12 여호와를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p> <p>13 여호와와 그 사람이 번성하고, 그의 자손들이 땅을 물려받도록 하실 것입니다.</p> <p>14 여호와와는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 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p> <p>15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밋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p> <p>16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p> <p>17 마음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오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p> <p>18 내 고통과 괴로움을 보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p> <p>19 보십시오! 내 원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십시오.</p> <p>20 내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p>	<p>1 "어찌하여 전능자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그분을 아는 자들이 어찌 그 날을 헛되이 기다리는가?</p> <p>2 어떤 사람들은 땅을 훔치려고 땅의 경계표를 옮기고, 남의 양 떼를 억지로 빼앗으며,</p> <p>3 고아들의 나귀를 잡아 가고, 가난한 과부가 빚진 것을 값을 때까지 소를 잡아 두며,</p> <p>4 가난한 자를 길에서 밀쳐 버리니 그 가난한 자들은 숨기에 바쁘구나.</p> <p>5 그들은 들나귀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자녀에게 먹일 음식을 광야에서 찾고 있네.</p> <p>6 가난한 자들이 남의 밭에서 곡식을 줌고, 악인의 포도원에서 떨어진 것을 주우며,</p> <p>7 입과 뺨을 것이 없어 밤새도록 추위에 떠는구나.</p> <p>8 산에서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에 흠뻑 젖으며 바위 밑으로 피하는구나.</p>	<p>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p> <p>2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p> <p>3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p> <p>4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p> <p>5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p> <p>6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p> <p>7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본 문 종합</p>
	<p>요 약</p>	<p>요 약</p>	

시 25:11-20	잠 19:1-17	요일3:11-17	본문종합
<p>11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은 수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p> <p>12 여호와를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p> <p>13 여호와와 그 사람이 변성하고, 그의 자손들이 땅을 물려받도록 하십시오.</p> <p>14 여호와와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 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시오.</p> <p>15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뒷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p> <p>16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p> <p>17 마음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오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p> <p>18 내 고통과 괴로움을 보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p> <p>19 보십시오! 내 원수가 참으로 많습니니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십시오.</p> <p>20 내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p>	<p>1 흠없이 행하는 가난한 사람을 입술이 사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비길 것인가?</p> <p>2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하고, 조급히 일을 처리하면 그르친다.</p> <p>3 자기의 미련 때문에 망하고서도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p> <p>4 부유하면 친구가 많지만, 가난한 사람의 친구는 그를 버린다.</p> <p>5 거짓 증인은 처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을 내뱉는 자 역시 벌을 피하기 어렵다.</p> <p>6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누구나 가까이 가려 한다.</p> <p>7 가난하면 친척들도 멀리하니 친구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사정해도 친구들은 달아날 뿐이다.</p> <p>8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며, 명철을 귀히 여기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p> <p>9 거짓 증인은 처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을 내뱉는 자도 망할 것이다.</p> <p>10 어리석은 자의 사치가 옳지 못하듯, 종이 주인을 다스리는 것도 옳지 못하다.</p> <p>11 슬기로운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으며, 허물을 덮어 주어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다.</p> <p>12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총은 풀에 내리는 이슬 같다.</p> <p>13 어리석은 아들은 그 부친을 망하게 하고, 다투는 아내는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p> <p>14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서 상속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다.</p> <p>15 게으름은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게으른 사람은 굶주린다.</p> <p>16 교훈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p> <p>17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 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신다.</p>	<p>11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 온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p> <p>12 악한 자에게 속했던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기는 악한 일을 했고, 동생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p> <p>13 형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p> <p>14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p> <p>15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p> <p>16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 줌이 마땅합니다.</p> <p>17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오늘의 기도</p>
	<p>요 약</p>	<p>요 약</p>	

시 25:11-20	전 9:13-18	마 25:31-46	본문종합
<p>11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은 수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p> <p>12 여호와를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p> <p>13 여호와와는 그 사람이 번성하고, 그의 자손들이 땅을 물려받도록 하실 것입니다.</p> <p>14 여호와와는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 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p> <p>15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밋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p> <p>16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p> <p>17 마음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오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p> <p>18 내 고통과 괴로움을 보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p> <p>19 보십시오! 내 원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십시오.</p> <p>20 내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p>	<p>13 또 내가 세상을 살피보다가, 인상 깊게 받은 지혜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p> <p>14 어떤 작은 성에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한번은 어떤 강한 왕이 공격하여, 그 도성을 포위하고 거대한 공격용 탑을 설치하였다.</p> <p>15 그 때에 그 도성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의 지혜로 그 도성을 구원하였다. 그런데도 이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p> <p>16 "지혜가 무력보다 강하다"고 내가 늘 말했지만,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무시되었고, 더 이상 이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p> <p>17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가르침이 어리석은 통치자들의 외침보다 훨씬 낫다.</p> <p>18 지혜는 무기보다 낫지만, 한 사람의 죄인이 다수의 행복을 파괴하고 만다.</p>	<p>31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p> <p>32 그 때에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p> <p>33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p> <p>34 그 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p> <p>35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p> <p>36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p> <p>37 그 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p> <p>38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p> <p>39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p> <p>40 그 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p> <p>41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p> <p>42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p> <p>43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입혀 주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p> <p>44 그 때, 그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헐벗었거나, 아프거나,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p> <p>45 그 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p> <p>46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p>	
	요약	요약	오늘의 기도

시 15	창 12:10-20	히 5:1-6	본문종합
<p>1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2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만을 말하고, 3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4악한 자들을 경멸하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5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 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p>	<p>10 그 때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11 이집트에 이르기 바로 전에 아브람이 아내 사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요. 12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 줄 것이요. 13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요" 14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사래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15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래를 보고 파라오에게 사래를 자랑했습니다. 사래는 왕의 궁전으로 불러 갔습니다. 16 사래 때문에 파라오는 아브람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왕은 아브람에게 양 떼와 소 떼와 암나귀와 수나귀를 주었습니다. 아브람은 왕에게서 남자 종과 여자 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17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18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래가 네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19 왜 저 여자를 네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20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람이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p>	<p>1 사람들 가운데서 뽐낸 대제사장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야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씻기 위하여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2 대제사장 역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치는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4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5 그리스도 역시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6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p>	<p>본문종합</p>
<p style="text-align: center;">요약</p>	<p style="text-align: center;">요약</p>	<p style="text-align: center;">요약</p>	

시 15	창 13:1-18	엡 3:14-21	본문종합
<p>1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2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만을 말하고, 3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4 악한 자들을 경멸하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5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 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p>	<p>1 아브람은 아내와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네게브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2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3 아브람은 네게브를 떠나 다시 벧엘로 갔습니다. 아브람은 벧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갔습니다. 4 그 곳은 아브람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5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습니다. 6 아브람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7 아브람의 목자들끼리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8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네 목자와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9 모든 땅이 네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10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알 쪽으로 있는 그 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 곳은 여호와와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 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11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람과 롯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 평원의 성들 가운데 살다가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 갔습니다. 13 그 때에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변을 둘러보아라.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15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16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많게 해 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의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17 일어나라,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18 그리하여 아브람은 자기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람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 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p>	<p>14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5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쁨을 받은 자들입니다. 16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 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7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18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9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짊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20 우리 가운데 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21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p>	
	요 약	요 약	오늘의 기도

시 15	창 14:1-16	눅 8:4-10	본문종합
<p>1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 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 입니까? 2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부 터 진실만을 말하고, 3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4 악한 자들을 경멸하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5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 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p>	<p>1 그 때에 아므라벨이 시날 곧, 바빌로니아 왕으로 있었고, 아리옥이 엘랄살 왕으로 있었고, 그돌라오멜이 엘람 왕으로 있었고, 디달이 고임 왕으로 있었습니다. 2 이 왕들이 나가서,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벨라는 소알이라고도 부릅니다. 3 이 왕들은 군대를 싯딤 골짜기로 모았습니다. 싯딤 골짜기는 지금의 사해입니다. 4 이 왕들은 십이 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십삼 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5 그러자 십사 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은 다른 왕들과 힘을 합하여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또 함에서 수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6 또 세일 산에서 호리 사람들을 쳐서 광야에서 가까운 엘바란까지 이르렀습니다. 7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방향을 돌려 엔미스밧으로 갔습니다. 엔미스밧은 가데스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8 그 때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은 싯딤 골짜기로 나가 싸웠습니다. 9 그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랄살 왕 아리옥과 맞서 싸웠습니다. 네 왕이 다섯 왕과 싸운 것입니다. 10 싯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역청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11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음식을 빼앗았습니다. 12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롯의 재산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13 그 때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 때에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벨과도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람을 돕기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4 아브람은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장막에서 태어나 그가 훈련시킨 사람 삼백십팔 명을 이끌고 단까지 뒤쫓았습니다. 15 그 날 밤에 아브람은 자기 부하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상대편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아브람의 부하들은 그들을 다마스쿠스 북쪽의 호바까지 뒤쫓았습니다. 16 아브람은 그들이 빼앗아 간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았습니다.</p>	<p>4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5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밟히기도 했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했다. 6 어떤 씨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 자라다가 물이 없어서 시들어 죽었다. 7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자라지 못하게 했다. 8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9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0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p>	
	요 약	요 약	오늘의 기도

창 18:1-10a, 시15	골 1:5-28	눅 10:38-42	본문종합
<p>1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커다란 나무들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때는 가장 더운 한낮이었습니다.</p> <p>2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p> <p>3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종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p> <p>4 제가 여러분 모두의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올 테니, 발을 씻으신 뒤에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p> <p>5 제가 음식을 조금 가져올 테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종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p> <p>6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밀가루 세 소아를 반죽해서 빵을 만드시오"</p> <p>7 그리고 아브라함은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아주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주었습니다. 종은 급히 그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했습니다.</p> <p>8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서 서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p> <p>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소?" "자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p> <p>10 그 때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 때에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 때 사라는 장막 문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p> <p>[사편15]</p> <p>1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p> <p>2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만을 말하고,</p> <p>3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p> <p>4 악한 자들을 경멸하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타나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p> <p>5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 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p>	<p>5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소망에 대해서는 처음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때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p> <p>6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p> <p>7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입니다.</p> <p>8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그를 통해 들었습니다.</p> <p>9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p> <p>10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길 기대합니다.</p> <p>11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p> <p>12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p> <p>13 아들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p> <p>14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p> <p>15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p> <p>16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p> <p>17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p> <p>18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십니다.</p> <p>19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p> <p>20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p> <p>21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p> <p>22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 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p> <p>23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p> <p>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p> <p>24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 냅니다.</p> <p>25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p> <p>26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p> <p>27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런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런 소망이 되십니다.</p> <p>28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p>	<p>38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 들였습니다.</p> <p>39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p> <p>40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p> <p>41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p> <p>42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요 약</p>	<p style="text-align: center;">요 약</p>	<p style="text-align: center;">오늘의 기도</p>

시 119:97-104	출 18:1-12	골 1:27-2:7	본문종합
<p>97 얼마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p> <p>98 주의 명령들은 나의 적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는 그것들이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p> <p>99 나는 나의 스승들보다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 <p>100 나는 노인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p> <p>101 나는 지금까지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p> <p>102 나는 지금까지 주의 법도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p> <p>103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달입니다.</p> <p>104 나는 주의 교훈들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악한 길을 미워합니다.</p>	<p>1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해 주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이야기였습니다.</p> <p>2 모세는 아내 심보라를 장인인 이드로에게 보냈습니다.</p> <p>3 모세는 두 아들도 보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숨인데 게르숨이 태어났을 때, 모세는 "나는 낯선 나라의 나그네이다" 하며 아들의 이름을 게르숨이라고 지었습니다.</p> <p>4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 모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 주셨다" 하며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p> <p>5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모세가 천막을 치고 있는 광야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곳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입니다.</p> <p>6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장인인 이드로일세. 지금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자네에게 가는 중일세."</p> <p>7 모세는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장인에게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세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p> <p>8 모세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또 거기까지 오는 도중에 겪은 어려움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p> <p>9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해 주신 좋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으므로 기뻐한 것입니다.</p> <p>10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주님께서 자네들을 이집트 사람들과 그 왕으로부터 구해 주셨네."</p> <p>11 여호와께서는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방지게 굴던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네."</p> <p>12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모세의 장인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p>	<p>27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런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런 소망이 되십니다.</p> <p>28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p> <p>29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p> <p>1 나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 주기 바랍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와 나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p> <p>2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런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 주십시오.</p> <p>3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p> <p>4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실제로는 거짓말인 유혹들에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p> <p>5 비록 내 몸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으나 내 마음은 언제나 그 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삶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더없이 행복합니다.</p> <p>6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p> <p>7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p>	
	<p>요 약</p>	<p>요 약</p>	<p>오늘의 기도</p>

시 119:97-104	잠 9:1-18	요일 2:1-6	본문종합
<p>97 얼마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p> <p>98 주의 명령들은 나의 적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는 그것들이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p> <p>99 나는 나의 스승들보다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 <p>100 나는 노인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p> <p>101 나는 지금까지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p> <p>102 나는 지금까지 주의 법도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p> <p>103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p> <p>104 나는 주의 교훈들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악한 길을 미워합니다.</p>	<p>1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서, 자기 집을 건축하였다.</p> <p>2 지혜가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로 상을 차리고,</p> <p>3 자기 여종을 보내어, 마을 높은 곳에서 소리쳐 사람들을 초대하게 하였다.</p> <p>4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시오."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말했다.</p> <p>5 "와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p> <p>6 어리석음을 버리고 거기에서 멀리 떠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걸으세요"</p> <p>7 비웃는 자를 꾸짖는 사람은 오히려 모욕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해를 입을 것이다.</p> <p>8 비웃는 자를 꾸짖지 마라. 오히려 미움만 산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는 네 꾸짖음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p> <p>9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여라. 그는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는 더 많이 배울 것이다.</p> <p>10 여호와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p> <p>11 나 지혜를 통해서 네가 오래 살고, 네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p> <p>12 네가 만일 지혜롭다면, 지혜가 네게 유익하지만, 만약 네가 거만하다면, 너만 손해를 볼 것이다.</p> <p>13 미련한 여인은 시끄럽고, 제멋대로 하면서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한다.</p> <p>14 그 여인은 집의 대문이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p> <p>15 자기 길을 똑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p> <p>16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세요"라고 말한다. 또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p> <p>17 "흠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p> <p>18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녀의 손님들이 무덤 깊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p>	<p>1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면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의로운 분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p> <p>2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p> <p>3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p> <p>4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p> <p>5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방법이 됩니다.</p> <p>6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p>	<p>본문종합</p>
	<p style="text-align: center;">요 약</p>	<p style="text-align: center;">요 약</p>	

시 119:97-104	신 12:1-12	요 6:41-51	본문종합
<p>97 얼마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p> <p>98 주의 명령들은 나의 적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는 그것들이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p> <p>99 나는 나의 스승들보다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 <p>100 나는 노인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p> <p>101 나는 지금까지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p> <p>102 나는 지금까지 주의 법도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p> <p>103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p> <p>104 나는 주의 교훈들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악한 길을 미워합니다.</p>	<p>1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지켜야 할 명령과 율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것들을 잘 지키시오.</p> <p>2 여러분은 여러분이 쫓아 낼 민족들이 산을 섬겼던 곳을 헐어 버리시오.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언덕 위에서, 그리고 잎이 무성한 모든 나무 아래에서 자기 신들을 섬겼소.</p> <p>3 여러분은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돌 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불태우고, 다른 우상들을 찢어 버리시오. 그들의 이름을 그 곳에서 없애 버리시오.</p> <p>4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때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방식대로 예배드리지 마시오.</p> <p>5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지파들 가운데서 예배드릴 장소를 선택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 곳을 찾아가시오.</p> <p>6 그 곳으로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가져가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얻은 것의 십분의 일과 여러분의 특별한 예물도 가져가시오. 바치기로 약속한 것과 여호와께 드리기 원하는 특별한 예물도 가져가시오. 소와 양의 처음 태어난 것도 가져가시오.</p> <p>7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 그 곳에서 가족과 함께 먹으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신 모든 일을 가지고 기뻐하시오.</p> <p>8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방법으로 예배드리지 마시오. 지금은 각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고 있소.</p> <p>9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편히 쉴 곳에 아직 이르지 못했소.</p> <p>10 그러나 여러분은 곧 요단 강을 건너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편안히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이요.</p> <p>11 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예배받을 만한 장소를 선택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내가 일러 주는 모든 것 곧 태워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 제물과 여러분이 얻은 것의 십분의 일과 여러분의 거제물과 여러분이 여호와께 약속한 가장 좋은 것을 그 곳으로 가져가시오.</p> <p>12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남종, 여종과 자기 땅이 없이 여러분의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들도 다 함께 기뻐해야 하오.</p>	<p>41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했으므로 예수님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p> <p>42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요셉의 아들 예수야.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지?'"</p> <p>4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수군대지 마라.</p> <p>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p> <p>45 예언자들의 책에 이런 글이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사람은 내게로 온다.</p> <p>46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람만 아버지를 보았다.</p> <p>47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p> <p>48 나는 생명의 빵이다.</p> <p>49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p> <p>50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p> <p>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p>	
	요약	요약	오늘의 기도

시 138	에 2:19-3:6	행 1:15-20	본문종합
<p>1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 찬양할 것입니다.</p> <p>2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엎드려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p> <p>3 내가 불렀을 때, 주는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는 내게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셨습니다.</p> <p>4 여호와여,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하게 하십시오.</p> <p>5 그들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게 하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p> <p>6 여호와와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내려다보십니다. 멀리서도 주는 거만한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p> <p>7 내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주는 나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주는 손을 내미시고 나의 원수들의 분노로부터 나를 구해 내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p> <p>8 여호와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p>	<p>19 처녀들을 두 번째로 불러모았을 때, 모르드개는 왕궁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p> <p>20 그 때까지도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지시대로 누구에게도 자기의 집안과 민족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개 밑에서 자랄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p> <p>21 모르드개가 왕궁 문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신하인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어로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p> <p>22 이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개가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자,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일러 주었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왕에게 말했습니다.</p> <p>23 사실을 조사한 후에 음모가 밝혀지자, 그들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왕궁 일지에 적혔습니다.</p> <p>1 이 일이 있던 뒤에 아하수어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여 귀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p> <p>2 왕의 명령에 따라 왕궁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절을 하지도 않았으며,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p> <p>3 그러자 왕궁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요?"</p> <p>4 날마다 모르드개에게 충고를 해도 듣지 않자, 그들은 그 사실을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모르드개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했으므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개의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둘지 지켜 볼 생각이었습니다.</p> <p>5 하만은 모르드개가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는 것을 보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p> <p>6 그는 모르드개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는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여, 아하수어로 왕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죽여 없앨 방법을 찾았습니다.</p>	<p>15 며칠 후, 약 백이십 명쯤 되는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p> <p>16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유다에 관해 말씀하신 것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p> <p>17 유다는 우리와 행동을 같이했던 사람이며, 우리처럼 사도직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p> <p>18 유다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발에서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나온 채 죽었습니다.</p> <p>19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발을 자기들 말로 '아겔다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겔다마'란 '피의 발'이란 뜻입니다.</p> <p>20 시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을 폐허로 만드시고 아무도 그 곳에 살지 못하게 하소서! 또, 시편 다른 곳에는 '다른 사람이 그의 직책을 차지하게 하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p>	
	<p>요 약</p>	<p>요 약</p>	<p>오늘의 기도</p>

시 138	에 3:7-15	행 2:22-36	본문종합
<p>1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 찬양할 것입니다.</p> <p>2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앞드려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p> <p>3 내가 불렀을 때, 주는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는 내게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셨습니다.</p> <p>4 여호와여,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하게 하십시오.</p> <p>5 그들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게 하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p> <p>6 여호와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내려다보십니다. 멀리서도 주는 거만한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p> <p>7 내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주는 나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주는 손을 내미시고 나의 원수들의 분노로부터 나를 구해 내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p> <p>8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p>	<p>7 그 때는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십이 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 곧 니산 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죽일 날과 달을 정하기 위해, 하만 앞에서 부르라고 불리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열두째 달인 아달 월로 정했습니다.</p> <p>8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든 지방에 걸쳐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삽니다. 그들은 어느 민족과도 다른 풍습을 갖고 있으며, 왕의 법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왕의 나라에서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p> <p>9 왕께서 좋으시다면 그 백성을 완전히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왕의 재정을 맡은 관리에게 은 만 달란트를 주어, 왕의 금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p> <p>10 왕은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유다인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습니다.</p> <p>11 왕이 하만에게 말했습니다. "그 돈과 백성은 그대의 것이니, 그대가 좋을 대로 하시오."</p> <p>12 첫째 달 십삼 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부름을 받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만이 시키는 대로 각 지방의 총독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각 지방과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썼습니다. 그들은 조서를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적어서 왕의 인장 반지로 봉인한 뒤,</p> <p>13 사신들을 시켜 전국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열두째 달인 아달 월 십삼 일에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죽여 없애 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라는 것이었습니다.</p> <p>14 각 지방에서는 이 조서를 베껴 법률로 선포하고, 모든 백성에게 알려 그 날을 준비하게 했습니다.</p> <p>15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사신들은 서둘러 길을 떠나고, 수산 성에서도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실 동안, 수산 성은 어지러움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p>	<p>22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킨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났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p> <p>23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세워 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p> <p>24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p> <p>25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뵈옵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겐 흔들림이 없습니다.</p> <p>26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쁨으로, 내 혀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몸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p> <p>27 주님께서서는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p> <p>28 주님께서서는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p> <p>29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 땅에 묻혔으며,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p> <p>30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여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이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p> <p>31 다윗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분의 몸은 썩지 않았다!'</p> <p>32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p> <p>33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쪽에 앉히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p> <p>34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 본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p> <p>35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둘 때까지!'</p> <p>36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요 약</p>	<p style="text-align: center;">요 약</p>	<p style="text-align: center;">오늘의 기도</p>

시 138	에 4:1-17	눅 8:22-25	본문종합
<p>1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 찬양할 것입니다.</p> <p>2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엎드려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p> <p>3 내가 불렀을 때, 주는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는 내게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셨습니다.</p> <p>4 여호와여,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하게 하십시오.</p> <p>5 그들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게 하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p> <p>6 여호와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내려다보십니다. 멀리서도 주는 거만한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p> <p>7 내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주는 나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주는 손을 내미시고 나의 원수들의 분노로부터 나를 구해 내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p> <p>8 여호와와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p>	<p>1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개는 옷을 찢고 거친 베옷을 입은 다음, 재를 뒤집어쓴 채 성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슬피 울었습니다.</p> <p>2 그러나 거친 베옷을 입은 채 왕궁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드개는 왕궁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p> <p>3 왕의 명령이 각 지방에 이르자, 유대인들은 크게 슬퍼하고 금식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거친 베옷을 입고 재 위에 누웠습니다.</p> <p>4 에스더의 여종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개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 주자, 그녀는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옷을 보내어 거친 베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를 권했으나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보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p> <p>5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돌보라고 보낸 내시 가운데 한 사람인 하닥을 불러, 모르드개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p> <p>6 하닥은 왕궁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갔습니다.</p> <p>7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빠짐없이 하닥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왕의 금고에 들어 놓겠다고 약속한 돈이 얼마인지도 알려 주었습니다.</p> <p>8 모르드개는 수산 성에 내려진 왕의 명령, 곧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내용이 적힌 조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었습니다. 모르드개는 하닥이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이고, 그 내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직접 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왕에게 간절히 빌 것을 하닥에게 부탁했습니다.</p> <p>9 하닥은 돌아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개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p> <p>10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p> <p>11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이 부르시지 않으면 안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의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왕이 금함을 내릴 때만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 벌써 삼십 일이나 되었습니다."</p> <p>12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개에게 전해졌습니다.</p> <p>13 그러자 모르드개가 다시 사람을 시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왕비께서 왕궁에 살고 계신다고 하여, 다른 유대인이 다 당할 일을 왕비께서만 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p> <p>14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대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를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니까?"</p> <p>15 그러자 에스더가 다시 그들을 시켜 모르드개에게 전했습니다.</p> <p>16 "가서 수산 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삼 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p> <p>17 모르드개는 나가서 에스더가 알려 준 대로 했습니다.</p>	<p>22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떠났습니다.</p> <p>23 가는 동안,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불어 닦쳤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험에 빠졌습니다.</p> <p>24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p> <p>25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두렵고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에게 호령하시고 바람과 물이 이분에게 순종하는가?"라고 서로 말하였습니다.</p>	
	<p>요 약</p>	<p>요 약</p>	<p>오늘의 기도</p>

창 18:20-32, 시138	골 2:6-15,(16-19)	눅 11:1-13	본문종합
<p>20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p> <p>21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악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이다."</p> <p>22 그리하여 그들은 그 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서 있었습니다.</p> <p>23 아브라함이 주께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착한 사람들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p> <p>24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오십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저 안에 살고 있는 착한 사람 오십 명을 위해 저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p> <p>25 제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미천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옳은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p> <p>26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소돔 성 안에 착한 사람 오십 명이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저 성 전체를 구원해 줄 것이다."</p> <p>27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먼지나 재에 지나지 않지만, 감히 주께 말씀드리겠습니다.</p> <p>28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이 사십오 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섯 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 성 전체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사십오 명이 있다면,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p> <p>29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착한 사람이 사십 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사십 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p> <p>30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이 삼십 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삼십 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p> <p>31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착한 사람이 이십 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이십 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p> <p>32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만약 열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열 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p> <p>시편 138</p> <p>1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 찬양할 것입니다.</p> <p>2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앞드려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p> <p>3 내가 불렀을 때, 주는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는 내게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셨습니다.</p> <p>4 여호와여,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하게 하십시오.</p> <p>5 그들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게 하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p> <p>6 여호와와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내려다보십니다. 멀리서도 주는 거만한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p> <p>7 내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주는 나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주는 손을 내미시고, 나의 원수들의 분노로부터 나를 구해 내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p> <p>8 여호와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p>	<p>6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p> <p>7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p> <p>8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p> <p>8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p> <p>9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남 바 되었습니다.</p> <p>10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p> <p>11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p> <p>12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p> <p>13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p> <p>14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르는 기록된 빛의 문서들을 우리 가운데서 취하셔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박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p> <p>15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 주셨습니다.</p> <p>16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p> <p>17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 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p> <p>18 겸손한 체하며 천사를 송배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으며</p> <p>19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p>	<p>1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p> <p>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p> <p>3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p> <p>4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p> <p>5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 한밤중에 찾아와서 말했다. 친구, 내게 빵 세 개만 빌려주게.</p> <p>6 내 친구가 여행하여 내게로 왔는데, 그에게 차려 줄 것이 하나도 없네네.</p> <p>7 그런 경우에,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이 이미 잠겼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네.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하고 대답하겠느냐?</p> <p>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p> <p>9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p> <p>10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p> <p>11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p> <p>12 또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p> <p>13 너희가 악하다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p>	
	<p style="text-align: center;">요 약</p>	<p style="text-align: center;">요 약</p>	<p style="text-align: center;">오늘의 기도</p>

시 55:16-23	에 5:1-14	골 2:16-3:1	본문종합
<p>16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p> <p>17 저녁에도, 아침에도, 대낮에도 나는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p> <p>18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지만 나를 죽이려는 전쟁터에서 주는 내 생명을 값 주고 사시어 안전하게 하십니다.</p> <p>19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셀라) 그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p> <p>20 내 친구였던 사람도 그의 친구들을 칩니다. 그는 자기가 한 언약을 깨뜨립니다.</p> <p>21 그의 말은 버터처럼 매끄러우나 그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부드럽지만 칼집에서 뺨 칼과 같습니다.</p> <p>22 여러분의 집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p> <p>23 하나님 주는 악한 자들을 끌어 내시어 썩는 구덩이 속으로 집어 넣을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와 사기치는 자들은 자기 사는 날의 반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굳게 믿습니다.</p>	<p>1 금식한 지 삼 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비의 옷을 입고 왕의 방이 마주 보이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그 때 왕은 방 안 보좌에 앉아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p> <p>2 왕은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어여뻐 여겨 손에 들고 있던 금홀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 금홀 끝에 손을 대었습니다.</p> <p>3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후여, 무슨 일요? 내게 무슨 부탁이라도 있소? 당신이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p> <p>4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좋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와 주십시오"</p> <p>5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 주겠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갔습니다.</p> <p>6 포도주를 마시던 왕이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 주겠소 당신이 요청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p> <p>7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렇습니다.</p> <p>8 왕이 저를 어여뵈 보시고 제 소원과 요청을 들어 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일도 잔치를 열겠으니 하만과 함께 와 주십시오. 그 때에 제 소원을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p> <p>9 그 날, 하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왕궁 문을 나오던 중 모르드개를 만났습니다. 모르드개는 여전히 일어나지도 않고, 자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다. 이를 본 하만은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p> <p>10 하지만 그는 회를 참고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렀습니다.</p> <p>11 그는 그들에게 자기의 재산과, 아들이 많은 것과, 왕이 그에게 명예를 주어 다른 귀족이나 신하들보다 높여 주신 것을 자랑했습니다.</p> <p>12 하만이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네. 에스더 왕후께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한 사람은 왕을 제외하고 나밖에 없었네. 그리고 왕후께서는 내일도 나더러 왕과 함께 와 달라고 하셨네.</p> <p>13 하지만 유대인 모르드개가 왕궁 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기쁜 마음이 싹 가신다네"</p> <p>14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오십 규빗 되는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 왕에게 모르드개를 거기에 매달아 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나서 왕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가세요"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p>	<p>16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p> <p>17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 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p> <p>18 겸손한 체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으며</p> <p>19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p> <p>20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십니까?</p> <p>21 왜 아직도 "이것은 붙잡으면 안 된다", "저것은 맛보아서도 안 된다", "만지지도 마라" 하는 등의 규칙에 얽매어 있는 것입니까?</p> <p>22 이런 규칙들은 먹으면 없어지고, 쓰면 사라지고 마는 세상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규칙이요, 가르침일 뿐입니다.</p> <p>23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관습들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 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p> <p>31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p>	
	<p>요 약</p>	<p>요 약</p>	<p>오늘의 기도</p>

시 55:16-23	에 6:1-7:6	롬 9:30-10:4	본문종합
<p>16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p> <p>17 저녁에도, 아침에도, 대낮에도 나는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p> <p>18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지만 나를 죽이려는 전쟁터에서 주는 내 생명을 값 주고 사시어 안전하게 하십니다.</p> <p>19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셀라) 그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p> <p>20 내 친구였던 사람도 그의 친구들을 칩니다. 그는 자기가 한 언약을 깨뜨립니다.</p> <p>21 그의 말은 버터처럼 매끄러우나 그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부드럽지만 칼집에서 뼛 칼과 같습니다.</p> <p>22 여러분의 집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p> <p>23 하나님 주는 악한 자들을 끌어 내시어 썩는 구덩이 속으로 집어 넣을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와 사기치는 자들은 자기 사는 날의 반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굳게 믿습니다.</p>	<p>1 그 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신하를 시켜 왕궁 일지를 가져오게 하여,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명령했습니다.</p> <p>2 그 일지에는 왕궁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인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 한 음모를 모르드개가 일러 주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p> <p>3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을 한 모르드개에게 어떤 영광과 상을 주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p> <p>4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그 때,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모르드개를 매달기 위해서, 왕에게 부탁하고자 왕궁 바깥 뜰에 와 있었습니다.</p> <p>5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들라 하여라!"</p> <p>6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크게 높여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 주면 좋겠소?" 하만은 속으로, '왕이 높여 주고 싶은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여</p> <p>7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크게 높여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p> <p>8 먼저 종들을 시켜, 왕께서 입으시는 옷과 왕께서 타시는 말을 내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는 관으로 꾸미게 하십시오</p> <p>71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갔습니다.</p> <p>72 둘째 날에도 왕은 하만과 더불어 술을 마시다가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यो? 내가 들어 주겠소. 당신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यो?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p> <p>73 그러자 에스더 왕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저를 어여뵈 보신다면, 그리고 제 요청을 들어 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민족도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제 요청입니다.</p> <p>74 제 민족이나 저나 이제는 다 죽고 망하여,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 가기만 해도 제가 잠자코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을 가지고 왕을 번거롭게 해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p> <p>75 아히수어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요? 그가 어디에 있소? 누가 그런 짓을 하려 하오?"</p> <p>76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p>	<p>30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얻었습니다.</p> <p>31 그러나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p> <p>32 왜 얻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의가 마치 행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p> <p>33 성경에 "보아라, 내가 시온에 사람들의 발에 부딪치게 하는 돌과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놓으리니,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p> <p>101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갈망하며 기도합니다.</p> <p>102 이스라엘에 관해 나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만, 그 열심이 지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p> <p>103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p> <p>104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p>	
	<p>요 약</p>	<p>요 약</p>	<p>오늘의 기도</p>

시 55:16-23	예 7:7-8:17	마 5:43-48	본문종합
<p>16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p> <p>17 저녁에도 아침에도 대낮에도 나는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p> <p>18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지만 나를 죽이려는 전쟁터에서 주는 내 생명을 값을 주고 사시어 안전하게 하십니다.</p> <p>19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셀라) 그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p> <p>20 내 친구였던 사람도 그의 친구들을 친다. 그는 자기가 한 언약을 깨뜨립니다.</p> <p>21 그의 말은 버터처럼 매끄러우나 그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부드럽지만 칼집에서 뿜 칼과 같습니다.</p> <p>22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p> <p>23 하나님 주는 악한 자들을 끌어 내시어 썩는 구멍이 속으로 집어 넣을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와 사기치는 자들은 자기 사는 날의 반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굳게 믿습니다.</p>	<p>7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뜰로 나갔습니다. 하만은 왕이 이미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자리에 남아 에스더에게 목숨만 살려 달라고 빌었습니다.</p> <p>8왕이 왕궁 뜰에서 잔치방으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기대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는데도 이 놓이 왕후를 덮치려 하는구나!" 왕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종들이 달려들어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p> <p>9 그 때 왕을 모시던 내시 가운데 하르보니가 말했습니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왕을 해치려는 음모를 알려 준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라!"</p> <p>10 그러자 사람들이 모르드개를 달려고 하만이 세워 놓은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습니다. 그런 뒤에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p> <p>1 바로 그 날,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의 원수 하만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와 모르드개의 관계를 밝혔기 때문에 모르드개는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p> <p>2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개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남긴 모든 재산을 모르드개에게 맡겼습니다.</p> <p>3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나아가, 그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울면서 하만의 악한 음모를 막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p> <p>4 왕이 금홍을 내밀자, 에스더가 자리에서 일어나 왕에게 말했습니다.</p> <p>5 "왕이여, 저를 여여뵈 보시고,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신다면 하만이 쓴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p> <p>6 제 민족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어찌 볼 수 있으며, 가족이 죽임당하는 것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p> <p>7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대인 모르드개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군인들을 시켜 그를 매달았소.</p> <p>8 이제 나의 이름으로 다른 조서를 쓰시오. 그대들 보기에 좋을 대로 쓰고, 나의 인장 반지로 봉인하십시오. 나의 이름으로 쓰여지고, 나의 인장 반지로 봉인된 조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소"</p> <p>9 셋째 달, 곧 시한 월 이십삼 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불러 왔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개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백이십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총독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귀족들에게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대를 포함한 각 지방과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p> <p>10 모르드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봉인을 한 다음에 왕궁에서 쓰려고 특별히 기른 빠른 말들에 사신들을 태워 보내서 그 조서를 전했습니다.</p> <p>11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지방의 민족이든 군대를 일으켜 유대인을 치려 하면, 그들은 물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멸망시켜 완전히 없애 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p> <p>12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유대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은, 열두째 달인 아달 월 십삼 일 하루 동안으로 정했습니다.</p> <p>13 왕은 조서의 사본을 각 지방으로 보내어 법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이 다스리는 지방의 모든 민족에게 알려, 유대인들이 원수에게 보복할 날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p> <p>14 사신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서둘러 왕궁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수산 성에도 왕의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p> <p>15 모르드개가 푸른색과 흰색으로 된 왕궁 옷을 입고, 머리에는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만든 자줏빛 겹옷을 걸치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수산 성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p> <p>16 그 날은 유대인에게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런 날이었습니다.</p> <p>17 왕의 조서가 전달된 지방과 성마다, 그 곳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축제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많은 사람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p>	<p>43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p> <p>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p> <p>45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리주신다.</p> <p>46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p> <p>47 만일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을 것이 무엇이나?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p> <p>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p>	
	<p>요 약</p>	<p>요 약</p>	<p>오늘의 기도</p>

시 49:1-12	잠 23:1-11	롬 11:33-36	본문종합
<p>1 사람들이여,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2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들어 보십시오. 3 나의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에 관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4 내가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나의 수수께끼를 풀 것입니다. 5 불행할 때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간사하게 속이는 자들이 나를 둘러칠 때에 어찌 내가 무서워하겠습니까? 6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7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습니다. 8 사람의 생명 값은 너무도 비싸며, 아무리 많이 내어도 살 수 없습니다. 9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0 보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멍청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11 무덤이 영원히 그들의 집이 될 것이며, 묘지가 대대로 그들이 사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사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12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동물들처럼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p>	<p>1 네가 높은 관리와 함께 식사를 할 때, 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아라. 2 식욕이 일어나거든, 네 목에 칼을 들이대라. 3 그의 진미를 탐하지 마라. 그것은 사람을 속인다. 4 부자가 되려다 건강을 해친다.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워라. 5 아무리 재물에 눈독을 들여도, 재물은 날개가 달린 독수리처럼 창공으로 훨훨 날아가 버릴 것이다. 6 구두쇠의 음식은 먹지 말고, 그의 진수성찬을 탐하지 마라. 7 그런 사람은 속으로 '저것이 얼마인데!' 하고 계산한다. "먹고 마시라"고 말은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아까워한다. 8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가 말한 칭찬도 소용 없게 될 것이다. 9 어리석은 자가 듣는 데서 말하지 마라. 그가 네 지혜를 비웃을 것이다. 10 조상들이 세운 발 울타리를 옮기지 말고, 고아의 발이라고 야금야금 취하지 마라. 11 그들의 보호자는 힘이 있으니, 그 보호자가 그들의 사정을 듣고 너를 벌할 것이다.</p>	<p>33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34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자가 되었습니까?" 35 "누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답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36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p>	
	요약	요약	오늘의기도

시 49:1-12	잠 24:1-12	엡 4:17-24	본문종합
<p>1 사람들이여,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2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들어 보십시오. 3 나의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에 관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4 내가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나의 수수께끼를 풀 것입니다. 5 불행할 때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간사하게 속이는 자들이 나를 둘러칠 때에 어찌 내가 무서워하겠습니까? 6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7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습니다. 8 사람의 생명 값은 너무도 비싸며, 아무리 많이 내어도 살 수 없습니다. 9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0 보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명철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11 무덤이 영원히 그들의 집이 될 것이며, 묘지가 대대로 그들이 사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사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12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동물들처럼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p>	<p>1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친구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2 악인들은 늘 범죄만 생각하고, 그 입술은 문제 일으킬 궁리만 한다. 3 지혜로 인해 집이 세워지고, 슬기를 통해 집이 견고해진다. 4 지식을 통하여 그 방에는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채워진다. 5 지혜로운 사람이 힘센 자보다 낫고, 지식 있는 사람이 무사보다 낫다. 6 전략을 세우고 전쟁하라. 전략가들이 많아야 승리를 얻는다. 7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는 너무 높이 있어서, 성문 앞 광장에서 할 말이 없다. 8 남을 해할 음모를 꾸미는 자는 음모자라 불린다. 9 미련한 자는 범죄할 생각만 하고, 거만한 자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다. 10 어려움을 당하여 낙담하는 것은 너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11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고 처형장으로 잡혀 가는 자를 구해 주어라. 12 네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재는 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시랴. 네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알지 못하시랴. 그분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p>	<p>17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18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19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22 옛 모습을 벗어 버리십시오. 옛 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23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24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p>	<p>본문종합</p>
	<p style="text-align: center;">요 약</p>	<p style="text-align: center;">요 약</p>	

시 49:1-12	전 1:1-11	막 10:17-22	본문종합
<p>1 사람들이여,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2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들어 보십시오. 3 나의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에 관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4 내가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나의 수수께끼를 풀 것입니다. 5 불행할 때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간사하게 속이는 자들이 나를 둘러칠 때에 어찌 내가 무서워하겠습니까? 6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7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습니다. 8 사람의 생명 값은 너무도 비싸며, 아무리 많이 내어도 살 수 없습니다. 9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0 보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명철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11 무덤이 영원히 그들의 집이 될 것이며, 묘지가 대대로 그들이 사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사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12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동물들처럼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p>	<p>1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설교자가 한 말입니다. 2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3 사람이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4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5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떠오르기 위해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가는구나. 6 바람은 남쪽으로 분다 싶더니, 다시 북쪽으로 향하고, 다시 이리저리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7 강들은 모두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결코 넘치는 법이 없다. 강물도 다시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8 세상 만사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하니, 눈을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듣고 또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9 이미 있던 것들이 다시 생기고, 사람들은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한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10 누가 "보라, 여기 새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이며, 우리가 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일 뿐이다. 11 이전 사람들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태어날 사람들 역시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p>	<p>17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쭙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8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19 네가 계명을 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를 대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20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21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2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p>	<p>오늘의기도</p>
<p>요약</p>	<p>요약</p>	<p>요약</p>	

시 49:1-12	전 1:2,12-14 ;2:18-23,	골 3:1-11	눅 12:13-21	본문종합
<p>1 사람들이여,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2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들어 보십시오. 3 나의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에 관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4 내가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나의 수수께끼를 풀 것입니다. 5 불행할 때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간사하게 속이는 자들이 나를 둘러칠 때에 어찌 내가 무서워하겠습니까? 6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7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습니다. 8 사람의 생명 값은 너무도 비싸며, 아무리 많이 내어도 살 수 없습니다. 9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0 보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명철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11 무덤이 영원히 그들의 집이 될 것이며, 묘지가 대대로 그들이 사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사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12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동물들처럼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p>	<p>12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112 나 설교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113 나는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로써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워 주셨는지 알게 되니 괴로웠다. 114 내가 해 아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 그 모두가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허무하였다. 218 정말, 해 아래서 내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내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모든 일이 싫어졌다. 219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까? 나의 후계자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니 이것도 허무하다. 220 그래서 나는 내가 했던 모든 수고에 실망했다. 221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하니, 이것 역시 허무하고 크게 잘못되었다. 222 사람의 모든 수고와 마음의 염려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223 날이면 날마다 알하는 수고는 괴로움뿐이며, 밤이라고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으니 이것도 허무한 일이다.</p>	<p>1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2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3 옛 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로운 삶이 감춰져 있습니다. 4 여러분 모두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5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6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회를 내실 것입니다. 7 여러분이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8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몰아 내려고 힘쓰십시오. 분한 생각, 회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9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10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11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든지 스구디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p>	<p>13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14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판사나 중개자로 세웠느냐?" 15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16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 17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18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공간을 헐고 더 큰 공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19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2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21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p>	
요 약	요 약	요 약	요 약	오늘의 기도